
 <b>국토교통부</b>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22. 4. 19.(화) / 총 3매(본문2, 참고1)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 자	• 과장 박기범, 사무관 김성자, 주무관 정복석 • ☎ (044) 201-3779, 3783	
보 도 일 시	2022년 4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마음을 품은 한옥을 찾습니다.

### - 202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준공·계획·사진·영상부문 8월1일부터 공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하 '한옥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한다.
  -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한옥 공모전은 잘 지어진 한옥을 찾아 국민에게 알리고 한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옥 공모전은 준공된 한옥,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설계 한옥, 사진 및 영상으로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준공부문은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 그간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한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옥 사용자의 만족도 및 유지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한옥을 선정하기 위해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한옥으로 응모 기준을 변경하였다.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설계 공모전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올해 공모 주제는 '마음을 품은 한옥 만들기'이다

- 이번 주제의 핵심은 한옥의 강한 생명력의 출발이 그것을 짓고 지켜왔던 사람이라면, 우리 한옥에 누구의 마음,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 사진과 영상부문은 특정한 공모 주제가 없고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작품 접수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진행하며 1·2차 심사를 거쳐 9월초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

○ 계획, 준공, 사진, 영상 등 각 부문별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비롯한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3개 부문의 본상이 수여된다.

○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 (<http://competition.hanokdb.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 개요>

구 분		계획부문	준공한옥	사진부문	영상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1,000만원(1)	현 판(1) 올해의 한옥대상	400만원(1)	400만원(1)
특별상(국건위원장상)		500만원(1)	-	-	-
본상	금 상 (계획부문 LH상)	500만원(1)	현 판(4) 올해의 한옥상(2) 한옥공공건축물상(2)	일반인 150만원(1) 청소년 100만원(1)	150만원(1)
	은 상	300만원(2)	-	일반인 100만원(2) 청소년 50만원(2)	100만원(2)
	동 상	100만원(3)	-	일반인 50만원(2) 청소년 25만원(2)	50만원(2)
입 선		상장 및 기념품	-	상장 및 기념품	상장 및 기념품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한옥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성자 사무관(☎ 044-201-37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http://competition.hanokdb.kr>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한옥정신  
(韓屋精神),  
담는 마음

한옥은 과연 어떤 건축인가?

이 질문 찾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앞에 놓여온 지구 스타일의 일, 즉 한옥을 대어하는 표현에서 시작되었던 유례를 찾아본 적도 있다. 한양의 하나로서 한국의 건축을 따를 때로하는 K-Architecture 핵심 내용으로 사용할 적도 있다. 그 결과, 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 높은 수단이라는 믿음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좋은 재료, 적절한 디테일, 세련된 문화를 중시하는 건축을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도입해 보았다. 자랑스러운 (인간)적연속성에 어울리는 건축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현재는 35,000㎡ 한옥이 만들어졌다. 기능이나 외관상 최고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 한옥과 주변 환경의 문명은 오직여 바깥 앞의 돌출과 같다. 전 국토에서 들어오는 개발 정황은 언제든 남는 그런림의 역사에 이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옥의 지속가능성은 가능한 것인가? 수천 년 지켜왔던 한옥의 생명력이 무엇이었는지 속고 할 시간이 된 것이다.

이 할의 한옥은 누가 주인이었고 유구한 세월 동안 누가 지켜왔던 것일까? 대답을 위해서 우리는 한옥의 정질이 건축주 노력의 결과인지 건축가 정질의 작품인지 물어다들 필요가 있다. 한옥은 명품 현대건축과 다른 것 같다. 정부의 지원에서 수여하는 우수건축의 수상자를 보아도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명품 현대건축에 대한 경향이 오롯이 건축가한테 주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생소한 장이라 할 수 있다. 건축전문가를 역시 막자의 한옥과 현대 건축의 주어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 한옥의 강한 생명력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다들 시간이 되었다. 막자의 건축 상형에서 한 줄기 것이 되어온 것은 '한옥 정신(韓屋精神)'이기 때문이다.

한옥에 건축주의 마음을 담을 것인지 건축가의 마음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마음을 담을 것인지 결정을 서두려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옥에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

작품접수: 8월 1일~8월 2일

	1차 심사	2차 심사
건축주권	부담 중	부담 중
계획주권	부담 중	부담 중
시공주권	부담 중	부담 중
당첨주권	부담 중	부담 중

\*당사의 일체권 일체는 부호(유체)이름 등의 권리 보유

